

당정청, 미세먼지 대책 비상

민주 원내대책회의... 탈석탄·한중 협력 강화 등 묘수 찾기로 "각 부처 장관·지자체장 현장방문 등 모든 역량 총동원"

여권이 최근 날로 악화하는 미세먼지 대책에 소매를 걷어붙였다. 우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당분간 가용한 당의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고 이른 시일 안에 청와대 및 정부 부처와 함께 '특단의 대책'을 내놓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책의 방향은 미세먼지 원인물질 저감과 중국발 미세먼지 줄이기를 위한 중국과 협력 강화로 모아진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중 협조 체제도 협약이나 협정 수준이 되도록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은 또 미세먼지특별법 처리에 매진하고 미세먼지 발생의 큰 원인으로 꼽히는 석탄화력발전소 축소안을 검토하는 등 에너지전환 정책 이행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당의 한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전력 공급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석탄화전 가동을 중단하거나 장기적으로 화전 가동을 최소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해찬 대표도 전날 문화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 간 회동인 초월회 모임 자리에서 석탄화전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들 방안 대부분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서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사과하는 것으로 성난 민심을 헤아리기도 했다. 조정식 의장은 "근래 중국발 서풍과 대기 정체 현상이 겹쳐 미세먼지가 더 악화했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지만,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에 불편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고강도 대응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회의 차원이기도 하다.

노 실장은 긴급차관회의에서 "미세먼지가 사상 최악의 상황인데 환경부와 기상청 전망에 따르면 내일도 이어질 전망이다. 많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유 여하를 떠나 국민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미세먼지 원인에서 중국발 스모그와 미세먼지의 유입, 최근 대기 정체 현상 등이 큰 요인을 차지하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대책을 강구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회의에서는 현장에서 미세먼지 비상저

감조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노력이 무엇인지 살폈다.

앞서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와 관련, "많은 국민께서 피해와 고통을 겪고 계시어서 마음이 몹시 무겁다"며 "이유가 어디에 있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미세먼지 대책은 환경부만의 일이 아니다"며 "각 부처 장관과 지자체장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이행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5일 "이 대표가 백 전 비서관에게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백 전 비서관이 민정비서관으로 인사 검증 업무를 했던 경험을 살려 인재 발굴·영입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민주연구원장직을 제안한 바 있다.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전략 기획과 인재 영입 등을 담당할 주요 당직과 관련해 이 대표가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백 전 비서관과 함께 복당한

민주, 백원우에 인재영입위원장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지난달 복당한 백원우(사진)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인재영입위원장 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5일 "이 대표가 백 전 비서관에게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백 전 비서관이 민정비서관으로 인사 검증 업무를 했던 경험을 살려 인재 발굴·영입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민주연구원장직을 제안한 바 있다.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전략 기획과 인재 영입 등을 담당할 주요 당직과 관련해 이 대표가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은 백 전 비서관과 함께 복당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는 당직을 맡기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임 전 실장이 현재 대통령 아랍에미리트(UAE) 특임외교 특보를 맡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당 관계자는 "특보를 맡고 있는데 당에 와서 다른 일을 하기가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다"며 "당장 당직을 맡기는 좀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오는 7일 임 전 실장과 백 전 비서관, 남요원 전 문화비서관, 권혁기 전 춘추관장 등 청와대에서 당으로 돌아온 인사들과 만찬을 하며 구체적인 당내 역할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해군사관학교 간 문대통령 (왼쪽)은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경숙 여사가 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73기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다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정배, 5·18 유공자 서훈 수여 입법 추진

민주평화당 천정배(광주 서구을·사진) 의원은 5일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에게 국가 서훈을 줄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5·18정신은 87년 6월 항쟁과 헌법 개정으로 이어진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정신이자 근간"이라며 "이런 역사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유공자 서훈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현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법에 따라 민주화운동으로 지정된 10건의 운동 가운데 서훈이 이뤄진 것은 4·19혁명까지"라며 "대표적



으로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김주열 열사에게 건국포장이 추서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5·18 열사들에 대한 서훈은 5·18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임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그 공적을 역사에 기록하는 것"이라며 "우선적으로 계엄군에게 희생된 열사들이 서훈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국회 내일 개회... 11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

3당 원내수석부대표 실무협상... 주요과제 이견

여야가 가까스로 3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으나 시작도 하기 전부터 냉랭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호, 자유한국당 정양석, 바른미래당 유의동 등 3개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국회에서 실무협상을 하고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7일 오후 2시 3월 임시국회 개회식을 개최하고 11일부터 사흘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하기로 했다.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은 19일과 20일 열린다.

또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정치·외

교통안전·경제·교육사회문화 등 총 4개 분야에 걸쳐 대정부 질문을 진행했다. 안건처리를 위한 분회는 28일 오후 2시와 29일 오후 10시 각각 개최하기로 했다.

민생입법의 시급성 때문에 여야가 이처럼 3월 국회를 열기로 했으나 정국 주도권을 쥐기 위한 기 싸움은 이날도 치열하게 펼쳐졌다.

여당인 민주당은 올해 처음으로 국회가 열리는 만큼 각종 민생입법에 야권이 조건 없이 협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앞으로 어떤 이유로든 다시는 국회가 멈추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져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 후 영어학습이 무산됐고, 국민 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대책도 국회에 쌓여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논의 및 초당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여당의 실정(失政)을 바로잡겠다며 잔뜩 별렀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 추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및 최저임금 관

련 법안 처리, 국민연금의 연금사회주의 차단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3월 임시국회에서는 정년 일 자리 도둑질을 밝히는 것을 최우선 민생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국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대외 공세 강도를 끌어올릴 것을 예고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3월 임시국회는 각종 의혹과 관련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필요하면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등의 도입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표 부동산 투기 의혹), 기획재정부위원회(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 환경노동위원회(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청문회를 요구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황교안 '바쁘다 바빠'

한국당 대표 취임 6일... 전통시장·봉하마을 잇따라 방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5일 남대문 새벽시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이 있는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잇따라 방문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전 남대문 새벽시장을 찾아 의류 상가를 둘러본 뒤 상인과 조건을 함께했다.

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현 정부 들어 시장경제가 무너지고 있다.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을 살리면서 거꾸로 시장을 죽이고 있다"며 "일하고 싶으면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을 잘하면 임금도 더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서민경제가 살아야 시장이 활성화된다. 그러기 위해서 시장경제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경제가 망가지도록 하고 어떻게 국민에게 흥을 내라고 하나.

시장이 살지 못하면 서민경제가 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오후엔 봉하마을을 방문, 노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후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지난달 28일 취임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동작 국립현충원을 찾아 역대 대통령들의 묘역을 전부 참배한 데 이어 통합행보 차원이다. 이 방문엔 조경태 최고위원, 이 비서관, 추경호 전략기획부총장 등 당 지도부도 동행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장성 삼계면 사창리 대지 268㎡ 조용한생활적합 3천만원
- 무안군 해례면 바다 150m 대지 790㎡ 팬션 전원생활적합 4천만원
- 무안군 일로읍 화산연꽃재수지 점 1192㎡ 조용한 생활 적합 1억2700
-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바다 전망 좋은 1130㎡ 1억2천
- 곡성 삼기면 청계리 681㎡ 광주서 30분내 4600만원

투자·매도·교환

- 영광 흥농을 주거지역 5223㎡ 투자에 최적 금고 5천 매도 1억2천5백
- 서구 아파트단지 반지하노래방 265㎡ 7층 7 영업장임 임대중 4억7천
- 강진 성전면 월출산 밑 4차선 점 4630㎡ 대형 저수지 인근 요양시설 적합 5억
- 화순 이양면 매정리 산·담 72532㎡ 은행 9천 매도 1억2500
- 농성초 건너편 월산동 소방도 코너 상가주택 대지 118㎡ 주택 78㎡ 1억9천
- 완도 군외면 원동리 임 7751㎡ 투자에 좋은 바다인접 4억6천
- 무안을 원룸·다세대부지 교정 옆 1031㎡ 투자에도 좋은 2억
- 담양 금성면 추월산·순창길 땅 808㎡ 커피숍·식당 적합 3억4천
- 충장로5가 버스도점 상업지 494㎡ 생활주택 사육적합 7억5천

상가건물

- 나주 금천면 면사무소 인근 땅 704㎡ 상가주택 211㎡ 5억5천
- 서석동 4층상가 조대 앞 땅 405㎡ 건평 919㎡ 보증금 6천 월 280 임대 중 12억
- 화순 농주면 소재지 땅 588㎡ 3층건물 1128㎡ 은행 1억 인수액 1억천
- 백운동로타리와 대성로타리 사이 대로변 땅 258㎡ 건물 265㎡ 8억
- 무안군청 앞 대지 202㎡ 3층 건물 전체 3천에 연 1500 임대 4억
- 월산동 무진중 부근 버스도 점 토지 155㎡ 건물 4층 263㎡ 4억천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급물건

- 나주 금천면 국도 점 주거지·대지·지연복지 25714㎡ 은행 12억 매도 24억
- 정읍 신대인읍 상업지 1273㎡ 아파트·다세대 적합 은행4억 매도 1억
- 북구 북동 금남로 471억 대로점 중심상업지 364㎡ 12억 5천
- 충장로 47가 땅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 1100.26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오피스텔

- 광주 동구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20층중 3층, 38평
- 전체물수리, 하천방향
- 주차 3대 무료, 관리비 저렴
- 보500만원에 월 50만원 임대보증
- 즉시입주가능, 사무실 전용
- 시세/감평가 - 1억2천만원

급매 - 7500만원
문의. 010-6834-7400

NPL 과 실전경매(기초)

11기 수강생 선착순 모집

- 첫 강의 일시
- 조선대 : 3월 8일(금) 주간 3시, 야간 7시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에만 연연하고 계십니까?
퇴직 이후가 걱정되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소액투자로 고수익 볼.

임대 공장 소유주는 자본없이도 자기 소유 공장 만들어 드림!

2019년도 1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9년 2월 28일(목) ~ 3월 8일(금)
- 교육기간 : 2019년 3월 8일(금) ~ 6월 14일(금)
- 매주 금요일 주간 3시/야간 7시
- 수강료 : 22만원(3개월) 예금주: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004-107-000152
- 접수상담지도교수 경영학박사 송용욱
- H. 010-9416-1200 T. 062)230-7700~2

2019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28기)	광주교육대학교(19기)
모집/과정	·금요일 오전반 2019. 3. 8(금) 09:10(중급반)	·금요일 오후반 2019. 3. 8(금) 14:10(중급반)
	·토요일 오전반 2019. 3. 9(토) 09:10(특급반)	·토요일 오후반 2019. 3. 9(토) 14:10(고급반)
모집기간	2019. 1. 25(금) ~ 3. 9(토)	
수업기간	2019. 3. 8(금) ~ 2019. 8. 10(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오전반 09:10 ~ 13:00	·오후반 14:10 ~ 18:00
수료후특전	·1, 2단계 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진흥회 한문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각 현문학회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방과 후 교육) 강사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3급·사범) 취득기회 부여	
수강료	₩ 360,000 (예금주: 광주여대) ·광주은행 : 148-107-307803	₩ 360,000 (예금주: 광주교대) ·국민은행: 773901-01-476736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 : 062) 950-3582-4 ·지도교수(선봉광) 010-3614-4160	·문 의 : 062) 520-4243 ·지도교수(선봉광) 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